

YWCA (사) 한국YWCA연합회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1.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524.3511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www.ywca.or.kr

2013.03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응답하라, YWCA

이달의 현장 ①
YWCA연합회 정기총회

생명 씨앗
에너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정책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하나님의 정의로 생명과 평화를

사진으로 여는 묵상



십자가는 내게 매일 매 순간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와 은혜를
매일 새롭게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나의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곳입니다.

최 병 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차

- 04 이달의 생각 _ 응답하라, YWCA | 유성희
- 05 이달의 인물 _ 한국YWCA의 산파, 김필레 | 편집실
- 06 이달의 현장 ① _ YWCA 연합회 정기총회 | 편집실
- 08 생명 씨앗 _ 에너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 이우진
- 10 생명 이야기 _ 풍요로움에 대해 다시 묻는다 | 이윤숙
- 12 평화의 여정 _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까? | 정옥식
- 14 돌봄협동조합 _ 협동조합 시대, YWCA의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 | 배정미
- 16 오늘의 여성 _ 여성 폭력 추방과 예방, 이젠 합의된 결론을 이행할 때 | 편집실
- 18 이달의 현장 ② _ 2013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운동 관련시설장 협의회 | 편집실
- 20 현장의 소리를 찾아 _ 청년·대학Y 활동 모임 | 조은선
- 22 YWCA와 사회 _ YWCA 학교 2013 | 국민일보 2월 기사 모음
- 24 키다리 _ 2013년 키다리에 바란다 | 편집실
- 26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_ 하나님의 정의로 생명과 평화를 | 최만자
- 28 YWCA 성명서 _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YWCA 입장
- 29 월례아침기도회 _ 당신의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 최이우
- 30 연합회 소식
- 31 회원YWCA 소식



Cover Story

따스한 봄비가 내리 쬐이던 3월 9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 추모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YWCA는 생명 사회를 꿈꾸며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피켓을 들었습니다. 후쿠시마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응답하라, YWCA!


글 | 유 성 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매너리즘’은 원래 미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양식’ 또는 ‘기법’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인 디 마니에라(Di Maniera)에서 유래되었다. 고프리치(Gombrich Ernst Hans)는 ‘서양미술사’에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예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다고 본 경지에서 뒤에 오는 예술가들이 앞선 거장들의 수법만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한다. 뒤에 오는 예술가들이 거장들의 작품에서 단순히 수법만을 모방한 것을 매너리즘이라 하고 그러한 모방현상이 풍미한 시대를 매너리즘 시대라고 명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너리즘에 대해 다른 측면의 해석도 있다. 매너리즘 시대의 원인은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과학적인 깊은 혼란의 배경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신세계의 발견은 중세의 기독교적 사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충격이었다. 이러한 문명의 혼란으로 인한 정신적 위기, 공황 상태 속에서 매너리즘의 예술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반영한 양식으로 고전주의 양식의 완성된 표현에 대한 반발로서 반고전주의 양식이 나타났고, 르네상스 문화를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킨 미적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너리즘 시대에 대한 성찰은 변화되는 상황 또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매너리즘은 이미 있는 존재에 대해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명의 도래, 경제 질서의 재편, 수많은 과제들, 혼돈과 혼란의 상황은 정신

적 공황상태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보다 현실주의로 대응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른 길일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가기 쉽다. 이미 있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이 없는 상황 그 자체가 매너리즘이다.

기독교 운동은 문명의 전환이나 위기 상황 때에 발생하였다. 2013년 전, 로마제국의 통치하에서 정치적 혼란, 문화적 혼돈, 신앙적 갈등을 겪던 이스라엘에 예수가 오셨다. 예수의 운동은 지금의 것을 고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었다.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은 유대인들의 율법중심의 운동을 뛰어넘은 사람과 세상을 위한 운동이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한 인간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 운동이었다. 일제의 압제, 독립에 대한 열망, 여성해방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한국의 선각자 여성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선물이 한국YWCA이다. 90년 동안 한국YWCA는 앞서서 보았고 실천했다. 100주년을 준비하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서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번의 시대적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Y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소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 안된다. 과거의 성과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를 부르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다. 

한국YWCA 산파, 김필레

글 | 편집실



왼쪽부터: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 선생님

나이도 차지 않았는데도 세례 받게 해달라고 떼를 쓰던 당찬 소녀가 없었다면,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수도 있을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여 최초의 동경 국비유학생이 된 젊은 여성이 없었다면, 식민지백성으로 민족의 살길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임을 자각하고 평생 헌신한 한 교육자가 없었다면, 한국YWCA의 90년 또한 없었을 것이다. 한국YWCA의 창설을 가장 먼저 주도한 김필레 선생. 선생은 1891년 황해도 장연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부친을 여의었으나 강인하고 열정적인 성품의 어머니 슬하에서 일찍 신앙과 신학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연동(정신)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더 큰 배움의 꿈을 품고 동경여자학원에서 8년간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학하는 동안 선생은 운명적으로 YWCA라는 신세계를 만나게 되었다. 민족을 초월한 거룩한 양심을 가진 Y지도자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고, 귀국하면 반드시 독립된 Y를 조직하겠노라 다짐했던 것이다.


1916년 24살의 나이로 귀국한 그는 정신여학교의 교사로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한편 조선 Y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던 중, 세브란스 의전출신 최영욱과 결혼하여 광주수피아여학교 교사로 교편을 잡게 되었다. 부군이 홀로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난 동안 선생은 서울에서 이화학당장 아펜젤러를 통해 김활란을 소개받고 Y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22년 ‘세계기독교학생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한 선생은 독립된 대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선 Y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리고 독지가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Y창립의 과정을

주도했다. Y를 알리기 위한 지역순회의 책임도 기꺼이 감당하여 기초를 닦고, 세계 Y에 정식 가입하기까지 실질적인 실무 책임을 다했다. 이후 본연의 교육자로서 중등학교 현장에서 평생을 헌신적으로 일했다.

해방과 6.25전쟁, 5.16 등 시대의 격변 속에서 수피아여학교, 정신여학교도 폐교와 복교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럴 때 선생은 언제나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아 어디든 뛰어다니면 해결해내는 든든한 교육계의 어머니가 되었다. 쉽게 되는 일은 없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과정도 신앙과 비전으로 이겨내었다. 1983년 7월 30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생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에게 남겨준 유품은 평생을 밑줄을 그어가며 읽던 성경책 한 권과 찬송가 한 권뿐이었다.

한국 Y 설립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이루어낸 선생은 Y현장에서 떠나있는 동안에도 한결같은 기대와 애정을 갖고, ‘45년 전 Y를 돌이켜보면서’라는 글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

“세대가 변천하고 그 변천에 따라 Y사업의 종류도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해서는 안되는 것은 Y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배달민족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이 귀중한 기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므로 오늘의 Y를 보게 하셨으니 구주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Y와 같이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처음으로 이 기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선생의 이 부탁은 오늘 Y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한결같은 음성으로 힘있게 들려온다. 

2012년을 돌아보고 2013년을 새롭게 하다

2013년 2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YWCA 버들캠프장에서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회원Y 대표 38명, 직무상대표(명예연합위원, 실행위원, Y-틴 전국협의회회장, 연합회 사무총장) 23명이 참석하였고, 회원Y 사무총장 46명, 연합회 실무자 25명이 방청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정리: 편집실)



정기총회 예배에서 특송을 부르는 회원Y 신임회장

5부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선출

총회에 앞서 5부지역위원회가 각 지역위원회별로 개최되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고 올해 지역별로 진행하게 될 지역별회원증모운동워크숍 계획 및 현안에 대한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위원장으로는 경기지역위원장에 수원Y 홍승화 회장, 동부지역위원장에 부산Y 하선규 회장, 북부지역위원장에 서울Y 차귀숙 회장, 중부지역위원장에 천안Y 김태년 회장이 새로 선출되었고, 서부지역위원장으로는 목포Y 김애자 회장이 유임되었다.

정기총회 회의

2월 15일 오전 9시에 정기총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도 보고 및 2013년도 계획 승인, 정관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기총회의 기능대로, 2012년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보고가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대표들은 지난 1년 동안의 노고를 박수로 격려하였다.

2012년은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YWCA 100주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한국Y 운동에 더욱 주력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한 해였다.

2012년 정기총회 및 해맞이축제에서 YWCA 90주년과

100주년의 의미 공유를 시작으로 다양한 90주년 기념 활동이 있었다. 4월에는 창립 90주년 기념 예배 및 기념식을 통해 YWCA가 한국 최고, 최대 여성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8월에는 YWCA 회원 약 4,5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전국회원대회를 열어 YWCA 회원 전체가 YWCA 100주년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다.

11월에는 세계YWCA가 주최하는 2012 YWCA ITI(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를 한국에 유치하여 한국Y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한국Y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목적과 꿈을 가지고 활동하는 세계YWCA 회원국들과 자매애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YWCA 90년의 운동 정신을 집약하여 문화적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YWCA 90주년 기념 영화 '사랑을 말하다'를 제작·상영하였다.

2011년 전국대회에서 2012~2013년 중점 운동으로 정한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청년리더십'을 직접 이행한 2012년은 특히 북한지원운동을 활발히 하였다. 한국Y 북한 재건 운동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정책 추진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확보를 위한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다. 작년에는 '키다리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 대안 교육의 모델을 만들고 Y청년 리더상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20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의 사업계획은, 2012~2013 한국YWCA 정책의 통합적 시행과 회원Y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다. 사업목표는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설치·운영, 핵심운동 집중시행-정의·평화를 아우르는 생명운동 전개, 회원Y 운영기반 안정화를 통한 운동성 강화 지원이다. 사업계획과 함께 그에 따른 예산도 제안대로 승인되었다.

연합회 정관 개정

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안건은 정관 개정이었다. 연합회 법인화 이후 법인격에 맞는 실제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구조연구TF팀에서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회와 총회의 기능, 이사회와 실행위원회의 역할과 자격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1단계로 전국대회와 총회의 기능중복 해소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관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회원Y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총회에 앞서 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에 대한 최종 제안안 검토를 위한 임시임원회, 임시실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승인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임의단체인 한국YWCA의 최고의사결정구조였던 전국대회의 기능을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구조인 총회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 정관에서 전국대회에 관한 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전국대회의 주요 기능이었던 실행위원과 공천위원의 선출 및 한국YWCA의 정책 결정을 총회에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총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총회 구성원도 추가되었다. 52개 회원Y의 회장에게 부여된 회원Y 대표권이 개정 후에는 정회원Y는 회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한 대표 3명, 준회원Y는 회장과 사무총장에게로 확대 부여된다. 직무상대표로 연합회 이사, 실행위원, 대학YWCA 전국

* 연합회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 *


- 한국Y 최고의사결정구조인 전국대회의 기능을 사단법인 최고의사결정구조인 총회로 이관
- 총회원 대표수 확대
- 회원Y 대표권 확대 부여
- 직무상대표 연합회 국장 추가
- 전국대회 개최하지 않음

협의회 회장, Y-틴전국협의회 회장, 청년전국협의회 회장 외에 연합회 국장이 새로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개정 전 총회원 93명에서 80명이 추가되어 개정 후에는 총회원 173명으로 대표수가 대폭 확대된다. 이 밖에 총회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원칙을 합의하였다.

기존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인 사업기구의 설정, 연합회후원회 이사의 추천이 실행위원회 임무로 이관되고 상임이사의 추천과 YWCA 세계대회 대표 선정 또한 새롭게 실행위원회의 임무로 포함된다.

정관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되었던 전국대회는 개최하지 않고, 9월 임시총회에서 2014~2015년 한국YWCA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며, 실행위원과 공천위원의 선출과 연합회 임원 선출은 2014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매 4년마다 진행되는 전국회원대회를 전국대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개최함으로써 전국대회의 역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표들은 정식 안건 외에 대학Y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배치 및 예산 배정 등 다양한 제안들도 협의하였다. 총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향후 연합회 실행위원 및 상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협의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1박 2일간 전국의 YWCA대표단은 작년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며 2013년 올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결의하였다. 오늘의 이 시간이 YWCA 운동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글 |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지금 후쿠시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도쿄 전력이 발전소를 수습하고 있지만 완전히 폐쇄하는데 앞으로 40년은 더 걸린다고 한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이 돌연사 했고, 어린이를 비롯해 건강영향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월에는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세습 기준치를 5천 배 이상 넘긴 물고기가 잡혔고, 개구리와 야생멧돼지에서 방사능이 높게 관찰되었다. 2011년 3월 11일 이후, 일본인들은 매일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각국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이렇게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핵에 대해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라고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찬핵에 가깝다는 점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핵에너지 전문가 민병주 의원을 직접 공천했고, 인수위원회에서 "한국의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평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해온 대통령이다. 따라서 올해 수립할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는 탈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탈핵에 대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적이 없다. 핵관련 과학자들과 소수의 에너지 관

료들이 에너지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에너지를 써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지자체가 있다. 바로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21일, 3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다.

서울시가 시민들과 논의한 결과는 핵발전은 '확대' 할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까지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원전 1기만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2.28%에 불과한 서울의 전력 자급률을 2014년까지 8%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에 LED를 보급하기 시작했고, 건물 단열개선 사업과 태양광 발전기 보급을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동작구 성대골, 강동구 십자성마을, 성북구 돌을별 마을 등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여름(6월~9월) 서울은 전년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1.4% 줄였다(같은 기간 전국 평균 3.4% 증가).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량이 줄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시보다 더 강력한 목표를 내건 지자체가 있다. 노원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45곳이 참여하는 '탈핵·에너지 전환 도시선언'을 주도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을 처리하면서, 처치 불가능한 방사능 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은 그만둬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노원구는 지난해 8월 '탈핵에너지 전환 종합대책'을 세우고, 노원에코센터를 통한 주민교육, 펠렛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노원햇빛발전소 등을 열심히 하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도시는 지난해 45개였던 것이 11월 순천시가 동참하면서 46개로 늘어났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발전소는 없으면서 전기를 쓰기만 했던 도시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형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위주로는 중앙집중식은 특정 지역에 환경적 사회적 고통을 전가하게 된다. 더구나 소비지까지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송전탑 문제도 발생한다. 지금도 밀양과 청도가 765kV송전탑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이제는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고, 지자체에 에너지 자립 개념을 도입,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을 골고루 질 수 있어야 한다.

노원구는 방사능 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식에서 '탈핵도시'를 선언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쓰기만 했는데, 노후한 발전소가 많아지면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폐기물을 처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 한수원은 각종 고장과 납품비리, 부품증명서 위조, 마약복용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처럼 어른들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미래 세대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행

히 서울시나 46개의 탈핵에너지전환 도시들이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반갑다. 우리사회에서는 핵발전소를 계속 지어 전기를 생산해야 돈을 버는 '이해당사자'들이 많다. 이들 '원전마피아'들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쓰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을 높일수록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탈핵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을 모으고 확산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서울시와 46개 탈핵·에너지전환 도시의 실험이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자체로 원전하나를 줄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의식이 깨인 개인들이 늘어나고, 개인들이 지자체를 변화시키고, 그런 지자체들이 모이면 국가정책도 바뀔 수 있다. 풀뿌리의 힘은 강하다. 우리 모두 <원전하나줄이기>에 동참하자. 🌱

LED조명 시스템 및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운동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

에너지 절약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핵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운동을 상징할 이름을 붙여주세요.

- 응모자격 : YWCA 회원 누구나
- 공모기간 : 2013년 3월 29일(금)까지
- 제출방법 :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 다운로드 후 choeyy@ywca.or.kr로 송부
- 시상내역 : 민들레상(최우수상) : 상금과 상장
뿌리상(우수상 2인) : 상금과 상장

풍요로움에 대해 다시 묻는다

글 | 이윤숙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경제성장이 안되면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쾅쾅 얼어붙었다고 한다. 하긴 그렇다. 생필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들리면 높은 가격표가 붙은 것에 놀라 몇 번이나 잡았다 놓았다 하다가 포기하기 일쑤다. 몇 년 간의 외국생활 후 체감하는 우리나라 물가는 정말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데도 TV나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는 소비 심리가 녹아서 소비가 많이 늘어야만 경기가 좋아진다는 논리가 되풀이된다.

공중파 방송채널 사이사이로 절묘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TV홈쇼핑은 소비 심리 자극 기술이 최고 수준이다. 이들의 상술은 너무나 위력적이어서 사람들이 그 물품을 사지 않을 수 없도록 때로는 유혹하고, 자극한다. 그 뿐 아니다. 닥치지도 않은 위험상황을 설정하여 그 상품이 꼭 필요함을 느끼도록 두려움마저 조장하고는 이윽고 신용카드를 꺼내게 만든다.

이제는 '소비'가 절대적인 미덕이다. 국어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에 자주 등장했던 옛 선인들의 '안빈낙도의 소박한 삶'과 '근검절약 정신'은 어느새 '찌질한 것'이 되어 버렸다. 쿨하고 멋진 것은 아끼느라 지저리 궁상을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것으로 자신을 바꾸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비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명품시장은 불황을 모르고 가격이 올라가도 판매가 떨어질 줄 모른다. 몸짱, 얼짱이라는 획일화된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추려는 사람들의 엄청난 열

기로 성형수술 및 다이어트 시장은 무한 확장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멋지고 쿨한 구매력을 갖춘 인간이 되려고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피크 쌓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소박하고 검소한 삶은 찌질하고, 몸짱 얼짱에 명품가방과 명품시계로 치장할 만한 소비능력자의 삶은 멋진 것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하고 생기 있고 행복한가? 온갖 최신 유행품과 명품을 소비하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삶이 정말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바닥 수준의 행복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그것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언젠가 TV에서 어느 젊은 여성에게 자기 월급보다 많은 명품가방을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당당한 얼굴로 "자신감 때문이죠."라고 했다. 명품가방이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라는 자신감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물건'이 사람의 심리와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고 타자와 나를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구획하는 후기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물질은 최고의 만능이 되고 신앙과 다름없는 숭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불안해하고 항상 결핍감에 시달린다. 자연을 파괴하고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값싼 노

동력을 이용해서 생산한 물품이 한없이 흘러넘치는 풍요시대를 구가하는 지금의 이 상태를 많은 이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하기도 한다.

미국의 평화학자인 더글라스 스미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들은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하고.

진짜 풍요란 무엇인가


10여 년 전 우연히 본 TV 속에서 본 것이지만 '풍요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마다 떠오르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의 한 예능프로그램으로 각국의 다른 문화와 풍습 속에서 재밌는 애깃거리를 소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날의 주제는 '세계 여고생들의 보물'이었다. 다름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난 여고생을 따라가 그녀들의 보물과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는데, 브라질의 여고생은 속옷장 깊숙이 소중히 감춰두었던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연애편지를 꺼내 보여주었고, 호화주택에 사는 이탈리아의 여학생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작은 펜던트 목걸이를 눈물 글썽이며 보여주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보물은 그 다음 소개된 일본 여고생의 것이었다. 라면전문점을 운영하는 보통 가정 여고생의 벽장에서 보물로 쏟아져 나온 것은 루이비통, 샤넬 등 여러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시계, 구두 등이었다. 어떻게 부잣집 딸도 아닌 그 여고생이 그걸 손에 넣었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전에 그것을 당당하고 거침없이 자랑하는 모습에서 나는 물질주의와 경쟁의 논리에 포획되어 이지메와 히키고모리, 원조교제와 무연사 등의 병리 현상에 신음하고 있는 일그러진 일본의 단면을 보았다.

하지만 이 방송의 장면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케냐의 가난한 여고생이 간직한 소중한 보물 때문이다. 다 쓰러져가는 킴킴한 집 안에 보물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 의아해 하는 취재진 앞에서 그 케냐

여고생은 어린 동생들이 울망줄망 앉아있는 작은 책걸상을 가리키고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여섯 형제들을 위해 손수 이 책걸상을 만들어주셨어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여기서 사이좋게 번갈아가며 숙제를 해요. 그래서 이 책상은 우리 형제들의 보물이예요."라고.

나는 오랜 식민지의 지배를 겪고 지금도 가난에 고통당하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소녀가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에 사는 일본 소녀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해보였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책상에서 어린 형제들이 북닥거리며 공부하는 케냐 여고생의 좁은 집이 명품가방이 쌓인 일본 여고생 집보다 훨씬 넓고 풍요롭게 보였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며 얻는 이 대량 소비 사회 풍요로움이 부끄럽고 절망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 아프리카 소녀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에서 뜨겁게 남아있는 것은 그런 부끄러운 성찰 때문만이 아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소녀의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시간과 공을 들이고, 그것이 사랑받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돌보아지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친구를 경쟁자로만 보게 만드는 학교,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을 잉여인간으로 취급하는 회사,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점점 더 '경제적 부담'으로만 여기도록 만드는 사회, 성공의 잣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 맞추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은 행복보다 우울함과 불안을 느낀다. 무한 소비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 가족들과 지낼 시간을 희생시키면서 불행해한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다시 묻고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물질의 풍요를 풍요로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이 소비사회의 정체에 대해,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살고 더 거룩한 존재에게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풍요로워지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까?

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3월 11일부터 시작된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와 '워싱턴 불바다'를 거론하면서 '전쟁이나, 평화냐'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응해 남한은 북한의 도발 시 도발 원전뿐만 아니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보복·응징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은 불꽃이라도 터지면 엄청난 재앙을 야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까지는 설전(舌戰)에 그치고 있다. 우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훈련 전에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의 참가가 거론되었지만, 막상 훈련이 개시된 후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정 절벽'에 처한 미국이 예산상의 문제로 항모 전단 파견을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자제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어쨌든 일촉즉발의 위기를 완화하는 데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의도는?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결이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위협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방어적 성격이 짙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정밀 핵선제타격'

을 운운하는 등 공격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의 위력을 앞세워 군사 모험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도 이례적이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해왔지만, 아예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임의의 시각 임의의 대상물을 타격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방불케 하는 언사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발언의 수위와 위협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판문점에 설치된 북미간, 남북간 직통전화를 동시에 차단한 것도 주목된다. 전쟁 위협은 높이면서 대화 채널은 단절하는 동시 언행을 동원해 버랑끝 전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답답한 것은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잇따른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불만과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전쟁이나, 평화냐'는 양자택일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추측컨대, 북한은 이를 통해 국내 체제 결속,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경제제재 해제 및 평화협정 체결 압박,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등 동시다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관건은 이 가운데 어느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에 있다.

우선 북한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체제 결속에 나서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동시에 사실상의 전시 동원 체제에 돌입했다. 북한 매체들은 모든 당 기구와 조직들이 전시 대비 체제에 들어갔고 각계각층에서 군 입대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장거리 로켓과 장사정포, 함정과 전투기의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내보내면서 강력한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지도부가 자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 체제 정당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보다 국가안보를 우위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주입시키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른 국방력 강화로 인해 더 이상 수세적인 입장에 놓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체제의 최대 성과로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만약 북한의 최근 언행이 이와 같은 '국내용' 성격이 짙다면, 북한의 설전(舌戰)이 실전(實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국내정치적 효과에 만족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최근 행태의 핵심적인 목적은 핵보유국 지위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은 정전체제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게도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북한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 같다. '조속히 평화협정 논의에 착수하든, 핵전쟁을 불사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게임의 법칙'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역시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고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 전쟁 방지에 사활적 이해

가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백지화 및 전쟁 위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찬성한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북한 지도부는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북한이 평화협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난 이후 '평화 공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평화협정과 비핵화, 창조적으로 융합해야

오늘날의 위기 상황의 1차적인 책임이 북한에게 있더라도, 한미 양국의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도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으로 두어야 할 대북 제재는 어느 덧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만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지 7년이 넘게 지나도록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없었다는 점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북한이 오늘날 극단적인 위협을 동원해 평화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데에는 북한이 과거에 '정중히' 요구한 평화협정 논의 착수가 번번이 한미 양국에게 무시당했다는 피해의식도 한몫하고 있다.

이제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북한은 거친 입을 다물고 협상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선 비핵화'에 매달리지 말고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창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평화협정 논의에 착수해 북한에게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비핵화를 평화협정에 녹여낼 수 있는 창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가령 북한의 핵 폐기 대상과 시한, 그리고 방식을 평화협정에 명시하면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별개가 아니라 한 몸이 될 수 있다.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올해야말로 평화협정을 통해 북핵 문제의 뿌리를 캐내야 하지 않겠는가? 

협동조합 시대, YWCA의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

글 | 배 정 미 (연합회 돌봄과살림팀 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1) 후 100일을 맞은 지난 3월 10일, 전국의 협동조합 설립 신청 건수는 총 647건으로 하루 평균 약 6.5건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481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1일(목)에 개최되었던 2012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가칭)돌봄과살림 협동조합’ 설립을 발표, 2013년이후의 한국YWCA 돌봄운동으로 제안한 한국YWCA는 어떠한가?

2013년 현재, 대다수 회원Y는 돌봄회원들 스스로의 공동체 정신 회복을 돕고, 교육과 알선업무를 요청받아 지원하면서 바람직한 돌봄운동 전개를 위한 역할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2~3개 회원Y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1~2개Y의 사회적기업, 그리고 2~3개의 회원Y가 시범회원Y가 되어 협동조합 설립(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회는 시범회원Y와 함께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는 물론 돌봄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의 협동조합 벤치마킹과 몇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계획하고 있다.



▲ (위) 사진 설명

지난 3월 12일 민주노총 15층에서는 '서울지역협동조합연합회 설립준비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오는 6월 창립 준비 중인 협의회는 ① 이종 간, 동종 간 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해 개별법(8개 특별법-생협, 신협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② 민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고 있어 중간지원조직을 강화, 협동조합 연합회 구성, 지역네트워킹 촉진 등 생태계 조성 ③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와 한계적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대안경제 모델로 부상 ④ 민간의 자주적인 역량으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2년 5월부터 약 5개월여간의 돌봄과살림 TFT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회원Y의 현안과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오른쪽 내용과 같다.

한국YWCA가 검토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빵 두덩이와 물고기 한 마리가 오천명을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때로는 너무 많아 고난을 맞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다르다. '다름'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찾아보려 한다. 협동조합 연구로 말이다. 

어떤 유형의 협동조합을 추진할 것인가?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TFT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은 Y의 '돌봄으로 사회정의 실현' 정신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모델.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한 정부지원(세제혜택, 위탁 등)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설립 초기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93조(사업)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 ② 제 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구인회원을 고려한 협동조합에 대한 TFT 검토

- 소비자(구인회원)가 가입할 경우,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모델이 될 것임. TFT에서는 소비자 의식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교육이수 후 가입절차 추진을 제안. 두 가지 방법 제시.
- ① 생산자협동조합의 기초를 다진 후 소비자 조합원 가입을 고려하는 방법
- ② 소비자협동조합을 별도로 구성하고 추후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변형을 검토.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사회적 목적실현을 중시하거나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심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형태.
- 캐나다 퀘벡주의 '연대협동조합'이 대표적 사례. 연대협동조합은 협동조합사업의 이용자조합원, 종업원 조합원, 그밖에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관심이 있는 개인, 회사조합원(후원조합원)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음.

협동조합이 알선·소개업을 병행할 수 있는가?

- 현재 유료·무료 알선·소개업을 하고 있는 회원Y가 조직을 전환하고자 할 때, 소개업을 통해 창출되었던 수익을 포기하기 어려운 조직적 이유로 직면하는 문제
- TFT 검토
 - 일반협동조합일 경우: 조합원과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상담, 교육훈련, 정보제공 불가능(45조), 따라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알선·소개를 통한 수익창출은 안됨.
 - 사회적협동조합일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차원에서 가능.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는 50%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에게 제공(구체적인 사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결정)가능. 알선·소개사업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판단되나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어떻게 조합원을 유지·가입시킬 것인가?

- 2008~2010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수행기간 동안 일부 시범회원Y의 돌봄비 회원 절반이 감소했던 경험으로, 이번 조직개편 역시 대규모 회원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 TFT 검토
 - 교육, 훈련, 홍보를 통한 핵심 리더 발굴이 필요하며, 초기에 결의를 도모한 조합원(소수이지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 이들이 향후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이끌어 내고 조합의 실질적 중심점이 될 것이기 때문.
 - 회원Y에서 이탈방지 노력에 힘써도 최소 2년 정도는 가입과 이탈의 변동이 클 것을 예상해야 함.

초기 임금삭감 현상과 최소화 방안

- 출자자본과 조합원 규모가 작아 최소 몇 년은 임금감소 현상이 예상. 회원실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
- TFT 검토
 - 일정 기간의 임금삭감은 협동조합교육을 통해 이해시키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노력의 중요성을 설득·공유할 필요.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교회의 사회적기여 차원을 강조하여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협동조합기금을 마련하거나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의 노력 필요.
 - 이중 사업들의 연결, 도입을 통한 수익창출 아이템 개발

여성 폭력 추방과 예방, 이젠 합의된 결론을 이행할 때

글 | 편집실

제5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3월 4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되어 15일까지 열렸다. 1946년에 설치된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산하 기능위원회 중 하나로 남녀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논의와 효율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매년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회의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45개 위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해마다 세계YWCA는 여성지위위원회에 전 세계 YWCA 여성들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올해 세계YWCA는 전 세계 80여 개 국가의 YWCA 여성 리더를 뽑아 다양성을 지닌 대표단이 되도록 하였다.

한국YWCA는 지난 2012년 11월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2012 세계YWCA국제지도력 훈련(ITI)을 개최하여 '여성폭력 추방과 평화 구축'에 대해 전 세계 30여 개국 회원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 강연과 사례발표 등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2 YWCA 여성폭력 추방(VAW: Violence Against Women) 교육 훈련에 참가한 여성들은 이번 제 57차 유엔지위위원회에 보낼 주창 메시지를 얻은 바 있으며 이 메시지는 세계YWCA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보낸 성명서의 초안이 되었다.

2013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의 주제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추방과 예방'이며 평가 주제로는 제53차 여성지위위원회의 합의된 결론인 HIV/AIDS에 대한 여성과 남성간 책임성의 동등한 공유

이다. 또 다른 논의 주제는 Post-2015 논의에 반영될 성평등 이슈였다. 2014년 제 58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제는 여성과 소녀를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MD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실행에 있어서의 성과와 과제이다.

세계YWCA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은 근본적으로 인권 침해와 유린의 문제이며, 여성과 남성간 힘의 불균형과 여성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의 부재와 결합된 성불평등이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요소들이 지속되는 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은 만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세계YWCA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평화 문화 구축과 여성폭력 철폐 없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세계YWCA는 UN에 POST-2015 개발 의제에 정의에 기반한 평화를 보장할 것과 기본인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여성폭력 철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세계YWCA는 여성폭력은 유해한 문화, 전통적, 종교적 관습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착취뿐만 아니라 신체적, 언어적, 성적,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경제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세계YWCA는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성불평등과 성에 기반한 폭력을 악화시키는 갈등도 폭력 형태라고 생각한다. 세계YWCA는 또한 이번 CSW에서 미디어와 대중매체 폭력과 여성과 여성 간 폭력도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세계YWCA는 제 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개최 기간 중인 3월 7일 아동 강제 결혼철폐를 요구하는 특별 결의문과 탄원서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특별 결의문을 위한 탄원서는 세계YWCA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회원YWCA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전세계 여성들의 탄원 참여서명을 가능케 했다. 이 특별 결의문에서는 전세계 20세에서 24세의 젊은 여성 중 3명중 1명은 18세 이전에 결혼하며, 2020년까지 약 1억4천2백 명의 소녀들이 18세 생일 이전에 결혼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아동강제결혼은 용납할 수 없는 아동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폭력이라 선언하였다. 이에 세계YWCA는 회원국들, 이들과 일하는 다른 단체에게 현 세대에서 아동강제결혼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고 보고 아동강제결혼의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으로는 차기 2015년 개발계획 중 핵심 사안으로 아동강제결혼을 근절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현세대 안에서 아동강제결혼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3년 3월 16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고 결론을 채택하였다. 2주간이 넘게 진행된 제5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회원 국가와 정부간 조직, 시민사회와 유엔에이전시는 합의된 결론을 위해 협의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여성과 소녀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가해자의 무 처벌을 종식시키고 이런 일에 남성들과 소년들을 전면적으

로 관여시키고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 성평등과 인간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종식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폐회식에서 유엔 여성의 대표인 미셸 바실렛은 "이번 성명서를 받아들이고, 참여한 정부들은 21세기에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성지위위원회 회원국들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킬 구체적인 행동을 착수하는 한편 여성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지키는 약속과 책무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세계YWCA는 아동강제결혼철폐를 비롯하여 불안정과 갈등, 여성인신매매, 성폭력과 여성차별 등의 주요 이슈를 발의하고 알렸다. 인권 토론, 여성의 정치적 참여, 폭력예방으로서의 교육, 유엔안전보장결의 1325, 젊은 여성의 리더십, 기후변화, 미디어와 통신의 역할 등의 YWCA 세션이 있었다. CSW에서 세계YWCA의 전세계적인 보고서- 젊은 여성이 원하는 미래-와 아동강제결혼에 관한 특별 결의문인 세계YWCA 탄원서가 발의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CSW57은 6천명이 넘는 개인이 등록하여 참석하는 가장 대표단의 규모가 큰 역사적인 위원회이다. 여성과 소녀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의 철폐와 예방이라는 주제는 시민사회로부터 최고의 참여로 이루어졌고, 전세계적으로 여성과 젊은여성, 소녀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폭력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그런 점에서 합의된 결론들은 이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종식을 위해 행동할 책무를 지고 이행의 시점에 놓인 것이다. 🌱

YWCA 여성폭력 관련시설장, 네트워킹의 첫걸음



지난 2월 20일 연합회 강당에서 2013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운동 관련시설장 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YWCA 여성폭력 관련시설장 및 연합회 실무자 총 30명이 모였다. 정정희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원장의 '여성폭력피해 지원 활동가로서의 고민과 자세' 라는 주제 강연 이후, '2013년도 YWCA 여성폭력방지운동을 위한 사업계획 공유 및 정책 제안' 시간이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이날 함께 나누었던 YWCA 여성폭력 관련시설들의 사업계획과 정책에 관련한 고민 등을 정리하여 담는다. (정리: 편집실)

2013년 YWCA 여성폭력방지운동을 위한 사업계획 공유 및 정책 제안

고양Y 가정폭력상담소 : 이혼 전 상담과 아동놀이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논산Y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상담, 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가정폭력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려고 한다. 또한 정서적 결핍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조손가정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이다. 최근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중·고등학교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한다.

안양Y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상담, 가해자 행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안양시 폭력예방기금 마련으로 성인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관찰소 방문과 캠페인을 할 것이다.

청주Y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성매매, 성폭력 근절,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아동안전지도만들기사업,

청주여성영화제사업 등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상담 부부상담 요청이 많다.

충주Y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영화 모임, 여성주의상담 실천스터디 등 작은 소모임 운영을 통해 인식 변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아이들을 폭력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서 동화구연을 통한 성폭력 교육을 지속하고 있고, 스스로 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안전도를 점검해볼 수 있는 아동안전지도만들기 사업도 계속하고 있다.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문화 속에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종Y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이나 가정폭력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다. 세계YWCA에서 함께 하고 있는 여성폭력 및 성폭력 추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올해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아동극을 인형극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대전Y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상담뿐만 아니라,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성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YWCA 여성폭력과 관련한 문제는 연합회와 공동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연예인 박시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의된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과 여성 이슈에 관련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안산Y 여성과 성상담소 : 일반상담뿐만 아니라 이혼 전 상담을 하고 있다. 부부 상담 1박 2일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에는 운동성 있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에서 운동체인 YWCA가 어떻게 운동력을 강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옳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다.

통영Y 성폭력상담소 : 아이들을 위한 모래놀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예방 '햇살'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한계가 많다는 의견이 크다. 통영 성폭력 사건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교육의 효과 매우 높았다고 평가된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인 대상이 주요하다.

광명Y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예방 인형극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인형을 만들고 대본을 만들어 아동 대상 성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적 효과가 높아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하남Y 성폭력상담소 : 아동 대상 인형극을 진행하고, 보호관찰소나 경찰소로 가기 전 단계의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가해청소년 치료프로그램 : 우리 다시 시작해' 를 시행한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은 그 이름이 '가정폭력' 이나 '성폭력' 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름에 따라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고민이 있다. 성교육은 아이들이

받아야 하고 예방교육은 성인이 받아야 한다는 말처럼, 아동과 학부모를 연계한 '햇살엄마 햇살아빠 되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호평을 받았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장애성폭력과 노인성폭력 프로그램 진행 시 다소 어려움이 있다.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울산Y 성매매피해상담소 : YWCA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관련기구는 Y에서 세 군데 밖에 없는데, 울산Y '씨밀레'는 원스톱 성매매 상담으로 연결되어 오는 대상자를 받는 곳이다. 1차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몸이 회복되면 기억을 더듬어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내담자의 목표는 자립이기에, 기술지원을 한 후 자립이 가능하면 퇴소하는 형태다. 씨밀레의 목표는 내담자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내담자를 보살피는 상담과 치유가 기본인 기관이다.

여수Y 여성인권 지원센터 : 성매매는 사후 지원대책보다는 예방이 우선해야 한다. 가출 후 성매매로 유입 대부분은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진다. 새날지기는 가출 청소년의 가출 장기화를 막고, 성매매 유경험자의 상습화를 막고자, 가출청소년 아이들의 아지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활동을 기획 중이다.

여수Y 여성상담센터 : 출국지원을 하여 가정폭력피해 이주민여성을 지원한다. 타 상담소에서 온 이주여성도 연계가 가능하다.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비즈공예, 명상, 그림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음, 아산재단사업으로 퇴소자 부부 대상으로 캠프도 운영하고, 지속적 자조모임도 꾸려가고 있다. 국제여성과 결혼하기 원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Y 쉼터 : 서울Y 누리봄은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심리치료도 연계하여 하고 있다. 또 관악구와 연계하여 여성안전지역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청년·대학Y, 단단한 씨앗에서 꽃 피울 준비를 하다



글 | 조은선 (연합회 청년리더십팀 팀장)

지난 2월 23일 토요일 천안에서 청년·대학Y 활동모임이 있었다. 청년·대학Y 회원 간 연대와 네트워크를 위하여 기획된 이날 모임에는 전국 10개 회원Y 청년, 대학Y 회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어릴 적 친구들과 했던 놀이처럼 "청년·대학YWCA에서 놀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고 부른 노래와 내민 손에 생각보다 많은 Y의 젊은 회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

모임 장소로 들어오는 청년·대학Y 회원들 손에는 작은 미션지 한 장씩이 들려있었다. 내용을 보니 참가자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유로운 게임, YWCA 역사와 운동에 대한 퀴즈, 정의·평화·생명 운동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적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가한 회원들은 이 작은 종이를 들고 임무를 수행하려고 이곳저곳 부지런하게 돌아다녔다.

카페같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깔끔한 공간 뒤편에는 YWCA 운동 주제별로 4가지 포스트를 설치해놓았다. YWCA 창립과 초기 활동, 청년 활동, 국제 활동, 중점 운동에 대해 사진과 짤막한 설명들로 YWCA의 활동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스트 옆쪽에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았다. 색색별로 정성껏 준비된 다양한 음식들은 작년 한국YWCA 정기총회에서 대학Y 재건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된 후원금으로 준비한 것이라 그 의미가 더 컸다.

이번 모임에 참가한 회원들은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에 놓인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다.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고민을 나누었다. 비록 오늘 이 고민의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 시기에 갖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YWCA 안에서는 공통된 문제로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서로가 공감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대학Y 재건을 준비하며 이 모임을 기획할 때 기대한 점은 딱 두 가지다. 청년·대학YWCA 회원들이 YWCA에서 활동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과, YWCA안에는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경직되고 낯설어하던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차차 웃음을 되찾고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하루의 짧은 시간을 보낸 이후 참가자들이 전국 Y회원들을 만나는데 목말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주Y의 한 회원은 "저와 같은 많은 청년들이 Y를 통해 함께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다. 오늘을 출발점으로 해서 다 같이 신나게 놀았다면, 앞으로 전국의 청년·대학Y가 모이는 자리에서는 Y가 바라는 리더상, 그리고 그 리더가 추구할 길 바라는 사회를 제시하는 자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놀라운 점은 청년·대학Y 회원 중에는 어렸을 적부터 Y에서 훈련된 리더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10년 이상 활동한 회원은 3명이었고 Y-턴부터 활동했던 회원들도 전체 참가자의 절반 정도 되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Y에서 더 많이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

울산Y의 한 회원은 "전국의 Y가 모인만큼 서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모임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학Y 활동의 중점은 청년 스스로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앞으로 YWCA가 청년·대학Y 회원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은 Y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과 너와 나, 우리와 사회를 이해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름에 진행할 두 번째 전국 모임에서는 YWCA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재밌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톡톡 튀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YWCA에 새로운 바람으로 불어오길 기대해본다. 🌻

< SMS로 보내온 참가 후기 >

청주Y 김광식 Y-턴부터 대학Y까지 Y를 통해 꿈을 찾아가고 비전을 세워가는 한 청년 회원으로서, Y안에 청년들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고 한편으론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Y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니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대됩니다. 2013년 Y에서 만나고 이루어질 인연과 기적 속에 자라나는 청년들의 리더십이, 대학생의 미래가, 더불어 나의 꿈이. 대학Y 사랑합니다.

울산Y 이정환 안녕하세요! 울산대학Y 회장이정환입니다. 오늘 대학협의회 재밌었어요! 전국의 Y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흔치 않은 경험이었고, 행사도 재밌었습니다. 팀장님과 다른 간사님

들도 서로 지역이 다른 Y 회원들의 열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대학Y 행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청주Y 정다훈 안녕하세요. 청주Y 정다훈입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따뜻한 분들과 함께 있어서 좋았구요, 모여서 노래하고 좋은 말씀도 들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눈썰매는 재밌어서 끝까지 탔어요 하하.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수Y 조석현 여수Y 회장 조석현입니다.^^ 이번 대학Y 전국 모임 재미있었습니다. 아쉬운게 있다면 너무 짧은 만남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자리 부탁드립니다. ^^

하나를 넘어 함께하는 우리로 'YWCA 학교 2013'

YWCA연합회는 매주 목요일 국민일보 32면에 YWCA 운동 정신과 현장을 소개한다. 2월은 Y의 젊음, 청년적 가치 하에서 'YWCA 학교 2013'을 주제로 다루었다. 2월에 실렸던 기사를 발췌·요약하여 담는다. (정리 : 편집실)

학교는 배움이다 2월 7일

배움에 소외됐던 여성들 교육에 앞장
야학원 설립... 후에 '기청공민학교'로
80여년 넘게 운영하며 2,900여명 교육
최근엔 청소년 위한 '키다리학교' 개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지

서울YWCA는 1924년 부녀자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원을 설립했고 이 야학원은 1947년 '기청공민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9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다. 2013년 2월 제72회 졸업식이 끝나면 졸업생은 2905명에 이른다.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으로 더 잘 알려진 최용신은 1932년 경기도 샘골에 '천곡학원'이라는 강습소를 열어 일제하인 당시에 한글을 가르쳤고, 농촌 남녀 어린이와 성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 YWCA은학(銀鶴)의 집, 안동YWCA 실버대학 등에서는 나이를 초월하여 배우고 나누려는 열정을 안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배움의 장들이 펼쳐지고 있다. 세계YWCA가 주관하는 국제 훈련기관 '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ITI)'는 10년마다 한 번씩 세계 각국에서 열린다. 이 학교는 공간과 이념을 초월한 학교이다. 강남 갔던 제비가 '지지배배' 노래를 하며 다시 오는 계절, 우리가 다니고 싶은 좋은 학교 이름을 '지지배배학교'라고 지어보니 웃음이 난다. '서로를 지지하는 학교,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 만큼,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나이를 모르고 깔깔대며 신나게 개학식과 입학식에서 노래를 부

르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학교는 자기성장이다 : 대안학교 '키다리교실' 2월 14일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을 깨닫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위해
'키다리 프로젝트' 진행
지난해 서울 등 4개 지역 60명
1년 과정 거치는 동안
기독교인 소양 갖춘 리더로 성장

짧지 않은 역사를 통해 Y가 감당할 일이 '학교'이다. 그리고 다시 그 학교의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키다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Y다운 리더'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리더, 혼자자 아닌 더불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 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리더이다. 그래서 겸손할 뿐 아니라 민감한 리더이기도 하다.

〈YWCA가 만나는 세상〉 친친와이파이 존

YWCA와 포스코는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 존'이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자유롭게 터지는 와이파이존처럼 4C인 대화 (conversation), 이해 (comprehension), 소통 (communication), 보살핌 (caring)이 있어 공감하고 배려하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안전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 되는 학교, 친구들과끼리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정이 와이파이처럼 팡팡 터지는 학교가 많아져 학교폭력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

여성의 직업교육 2월 21일

40~50대, 여성인력개발센터 찾아
취업·자아실현위해 배움열기 후끈
출산·육아 워킹맘엔 복지서비스도
전국 52곳중 27곳이 YWCA 산하
기능 아닌 선호분야 발굴 교육 특징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좋은 일자리로 연결하여 주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여성들의 기능적 직업능력이 아니라, 여성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 그 능력을 집중 훈련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며 '성장하는 나'에 대해 체념하기를 거부하고 삶의 '제2막'을 열기 위하여 경주한다. '자발적' 배움의 길목에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존재하고, 그 모퉁이를 돌아 일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여성들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YWCA가 만나는 세상〉

한국YWCA는 창립초기부터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의 경제자립을 중요시하였다. 1970년대 여성 직업개발 프로그램은 도배, 페인트, 타일 등 다양한 직업분야를 개척하여 나갔다. 1960년대부터 직업훈련사업을 전개한 서울YWCA의 독산동 근로여성회관은 여성의 전통적인 업무를 전문 직종으로 계발, 교육시키는 등 당시로서는 유일한 여성전문직업훈련기관이었다. 1993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명명한 여성직업훈련기관이 설립되었으며 한국YWCA연합회를 사업주체로 하여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실버세대의 교육 2월 28일

까막눈 만학도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노인세대 경험 존중되고 확산되는 데 주력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한 다양한 강좌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화, 발전하고 있다. 빠른 속도

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의 특성이 달라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이전과는 다른 내용을 요구받는다. 노후의 생활 안정과 이들의 행복을 위한 제도나 사회적 환경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인세대를 위해 다양한 '실버세대의 교육'이 필요하다. YWCA연합회는 '은학의 집'이란 자체 시설을 만들어 노인세대의 경험이 존중되고 노인문화가 생성되고 확산되도록 노력해 왔다. 서울Y는 노인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일찍부터 펼쳐왔다. 또 그러한 교육이 배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회원으로서 다양한 YWCA회원 활동에 참여하게 해 준다. 안동Y 또한 노인 세대를 위한 활동으로 실버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요클럽'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10년째 하고 있다. 실버세대의 교육은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YWCA는 노인세대를 위한 배움과 이들의 활기찬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YWCA가 만나는 세상〉 (사회복지법인) YWCA은학의 집

YWCA은학의 집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이다. YWCA은학(銀鶴)의 집은 이름 그대로 노후를 '학처럼 고귀하고 우아하게 빛나는'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곳이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노인 요양시설, 주간 및 단기 보호사업, 방문요양,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문화교육 강좌, 자원봉사프로그램,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은퇴자 부모모임 동아리 '은학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기 존중감을 잃지 않는 것과 노인 스스로 지역사회 문화 전승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중요할 것이다. 노년의 삶에서의 배움과 학습은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을 존중하고자 하는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은학(銀鶴)의 집은 다른 말로 하면 노년에 배우는 학교, 은학(銀學)이다.

키우자 Y다운 리더 키다리



2013년 키다리에 바란다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이 열렸다. 6개 회원Y(고양, 서울, 안양, 청주, 광주, 대전)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연합회 청년리더십팀 위원과 실무자 총 16명이 참가하였다. 본격적으로 2013년도 키다리학교 시작을 앞둔 가운데, 키다리학교 비전 나눔과 함께 운영 내용을 함께 기획하는 자리였다. YWCA 청소년 리더를 키위 하는데 최전선에 설 Y활동가들의 바람을 들어 보았다. (정리 : 편집실)

키다리학교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요?

광주Y :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스스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장을 제공하는 뜻 깊은 곳이라 생각한다. 정해진 결과를 내는 것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낼 키다리학교가 기대된다.

고양Y : 키다리는 YWCA 청소년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시각을 제시하는 새로운 틀이고 도전이다. 무엇보다 YWCA가 다음 세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안양Y : 그동안 청소년 활동을 떠올리면 YMCA가 더 빨리 생각났다. 그런데 YWCA에서 청소년 학교를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키다리학교는 청소년들의 정신과 육체 모두에 좋은 영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대전Y : '자유, 행복, 아이들의 눈높이 맞춤, 주체적인 성장' 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른다.

서울Y : YWCA 키다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소년!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할 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준비해 나가고 성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주Y : YWCA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에 변화가 생겼음이 반가웠고, 무엇보다도 요즘 청소년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리더십' 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좋았다.

키다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과 해보고 싶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주Y : 청소년 스스로가 주제를 정하는 만큼, 청소년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지도자의 의지와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조급해 하지 않고 청소년의 참신함을 믿고 기다려주고자 한다.

고양Y :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나누고 해결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평화 워크숍, 민족의 평화 및 하나 됨에 대해 나눌 수 있는 평화 여행,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거리축제를 할 수 있는 평화 축제를 하고 싶다.

안양Y : 자신을 사랑하는 인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인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인권을 선언하고 싶다. 서로가 사랑받고 배려 할 기본에 충실할 시간이 절실하다. 서로 보듬어주기 교육을 하고 싶다.

대전Y : 자신의 주장을 잘 펴지 못했던 친구들은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키다리학교가 말하는 공감능력과 협동력을 지닌 실천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밟고 싶다.



왼쪽부터 : 오수현(고양Y), 김윤희(서울Y), 김희정(안양Y)

서울Y : 인권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활동하고 싶다. 올해 세계인권선언문을 공부하고 인권여행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키다리들이 우리만의 색을 가진 인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또한 작년과 올해 활동한 키다리들이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후배 키다리들을 위한 멘토나 자원지도자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청주Y : 최근의 여러 청소년들을 만나면 비전도 없고, 수동적인 청소년들이 많다. 키다리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영성, 리더십, 그리고 Y의 정신을 심어주어 비전을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Y다운 리더' 로 성장시키고 싶다.

YWCA 키다리운동에 대한 소망과 거는 기대는 무엇인가요?

광주Y :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나아가 키다리 학교의 정신이 Y-틴협의회 동아리에도 확산되어 참신함과 적극성을 가진 Y-틴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청소년들에게 또 참여하고 싶은 키다리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양Y : 키다리들이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여럿이 함께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가치(평화, 생명, 정의, 돌봄, 나눔)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돕고 싶다. 키다리에서 실천하는 창의적인 대화 및 소통의 방법이 YWCA 운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욱 힘을 실어줄 것 같다. 키다리와 소통하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 및 필요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추도록 마음을 비우고, 대화할 것이다.



왼쪽부터 : 이한나(청주Y), 박송희(광주Y), 안성현(대전Y)

안양Y : 청소년을 보듬을 프로그램이 얼마나 될까? 따뜻한 접근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하고 싶다. 키다리운동이 확산되어서 어린이부터 대학·청년까지 범위가 확장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YWCA 키다리학교의 교육방침이 공교육에도 반영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대전Y : 청소년들이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수동적인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들의 자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키다리학교가 되면 좋겠다. 키다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자유와 책임을 몸으로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잃었던 혹은 찾지 못했던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Y : 청소년들이 YWCA 키다리 운동을 통해 생각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키다리 운동이 YWCA 청소년 회원의 활력소가 되어 Y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운동할 청년들로 성장하면 좋겠다. 작년에 키다리 1기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키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소중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2기 활동이 더욱 키다리스러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청주Y : YWCA 키다리 운동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힘을 길러주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발전된 더 나은 키다리학교를 진행하겠다. 또한 키다리의 비전과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겠다. ♪

하나님의 정의로 생명과 평화를!

글 | 최 만 자 (여성신학자, 연합회 아카데미 위원)

에큐메니칼 운동,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용어인 ‘에큐메니칼’이란 말은 신약성서에서 14차례 나오는 헬라어 ‘오이쿠메네’란 말에 어원을 두고 있다. 이는 ‘인간이 거주하는 온 세계’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안에서 통용되면서 ‘전 세계교회 운동’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전 세계교회운동은 갈등과 분열, 투쟁이 만연한 교회 안에 연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인과 그리스 로마세계의 박해와 영지주의 등의 사상적 위협들에 대항하기 위해 교회와 전통의 일체성 형성이 절박해졌고, 그래서 사도들은 오이쿠메네를 강조했다. 이후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수많은 불일치들-영성, 제도, 교리, 선교의 경쟁 등-의 현상에서 기독교는 본래의 복음정신을 상실한 채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역사를 반복하였다. 이에 에큐메니칼 정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교회연합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선교연합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창립하며 ‘다양성 속의 일치, 상호공존과 협력’이라는 정신을 근원으로 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을 하였다. 수많은 종파, 교파, 교단들 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세계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로마 가톨릭도 1962년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갈라져 나간 교회들’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에큐메니즘 운동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의식을 오늘의 분열된 교회 상황에서 회복시키며, 현대 다원주의 세계의 곤경과 모순들에 대결하고 열림과 대화를 통한 시대적 진리를 추구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 땅에 하나님나라의 실현’과 그 일을 위한 온 교회들 간의 일치와 협력, 그리고 세상의 다른 진리들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일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신학은 이 땅 위에 하나님나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서서 사회의 구조적 악의 문제와 불의한 현상들에 대한 근원적 요인 극복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역사 안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회참여적’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신앙과 세속의 이원화를 넘어서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신학이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1855년 영국에서 창립된 세계Y는 신앙과 사회의식을 일치시키는 신학의 정신 위에서 부녀자들의 실생활 문제를

돕는 일을 신앙의 실천으로 생각하여 각 계층의 젊은 여성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살게 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세계Y는 당시 구미교회들의 세계선교의 팽창과 더불어 국제적 여성기독교운동으로 발전되었으며 1894년 세계YWCA라는 국제기구를 조직하여 세계로 확장되었다. 한국YWCA는 1922년 기독교여성단체로 창립되었다. 한국Y 창립의 주역들(김필례, 김활란, 유각경)이 모두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성 지도자들로서 신앙에 입각한 여성사회운동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Y가 세계Y에 가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Y는 기독교 에큐메니칼 신학의 근거 위에 서게 되었고, 사실은 창립의 준비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진원지인 세계기독교학생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대회에 김필례, 김활란 두 창설자가 참가하여 에큐메니칼 정신의 진수를 경험하였다. 한국Y는 한국교회협의회(KNCC) 창립기에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 연합에 참여하였으며, 그 운동의 기반 정신을 에큐메니칼 신학에 세운 단체이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생명신학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동안 WCC에서의 솔한 논의를 통하여 세계와 교회의 관계이해를 새롭게 하는 노력을 했다. 기독교의 전통적 이해가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 세상은 버려야 할 곳, 우리는 어서 그 세상으로부터 피하여 노아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성숙 이원론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해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곳이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교회가 섬겨야 할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과 역사와 사회 영역에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 생명과 평화를 이루고자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참여하여 세상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신학이다. WCC가 급박하게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인류가 지금대로 자연을 착취하면 2050년대에 이르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 자극을 받아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과제를 오늘 교회의 중심 사명

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생태계의 문제는 심각하여 향후 50년 안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550ppm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구 평균 온도가 3도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도 이하가 생존의 마지노선이다. 세계환경위기 시계는 2008년에 9시 33분을 가리켰다. 2015년까지 인류가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견잡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인류가 인간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만물과 유기적 생명체로 연결된 존재로 자연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생태학자들이 심각하게 제기하였고 ‘생태적 감수성’ 혹은 ‘생태정의’의 필요성이 호소되었다. 이 같은 생명문제에 관한 에큐메니칼 신학적 교회운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생명 보전에 대한 성서말씀을 새로이 찾고 실천해야 한다는 신학을 강조하여 왔고, 올해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WCC 총회의 주제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 인류는 ‘총체적 생명의 위기’ 앞에서 있으며, 생명운동에는 무엇보다 영적-도덕적 각성이 있어야 한다. YWCA 운동 그리고 온 교회의 오늘의 긴급한 운동은 바로 이러한 영적-도덕적 각성, 곧 하나님의 정의에서 서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생태적 회심(회개)’ 운동을 펼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YWCA가 그동안 펼쳐온 바른 삶 실천운동이나 올바른 먹거리 운동, 환경운동 그리고 생명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운동들은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소중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된다. 이에 더 나아가 생명파괴의 역사적 뿌리, 구조적 뿌리-탐욕스러운 인간 이기심- 현 세계의 모순된 구조에까지 더 근원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생태계 파괴의 배후에는 불의한 경제구조와 금융경제의 횡포도 직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핵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원적 성찰을 해야 한다. 핵은 인간이 만들어 낸 프롬테우스의 불이라 표현한다. 핵문제의 최근 경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오늘날 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 생명의 문제에 총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통감해야 한다. 이 긴박한 문제에 분열이 있을 수 없으며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지 않은가?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YWCA 입장

지난 1월 23일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며 북한은 2월 12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남북한의 약속과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며 동북아 평화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핵의 위험성과 치명성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전역과 인근 해역까지 방사능 오염의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에 밀집된 핵발전소 시설들의 위험성에 더해 한반도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한국YWCA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발전소와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핵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로 위협적인 군사 행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은 무력 행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동시에 남한은 강경 일본도의 대북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실제로 대북 강경책이 오히려 평화를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YWCA는 남북한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의 평화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 2. 14.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2월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핵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를 재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어 발생한 한미군사합동훈련 '키 리졸브'에 이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관련하여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남북 양국 군사행동의 중단과 평화의 창구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를 위한 긴급여성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은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의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글 | 최이우 (종교교회 담임목사)

요 14:12~14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10:10)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14:12) 예수님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것이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14:1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신다.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있다. 그것을 극복하면 기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이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

보다 낫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로 영적인 무지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당면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분주함이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한 경우는 별로 없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여유 있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마음의 분주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기도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기보다 영성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일도 하기를 원하신다. 기도의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신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통로다. 열려있는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은혜의 강수가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연합회 소식

3월 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3월 4일 오전 7시 30분에 월례아침 기도회를 열었다. '당신의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최이우 목사(중교교회)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YWCA 생명운동과 탈핵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2013년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YWCA 버들 캠프장에서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자세한 내용 P.6~7)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2013년 정기총회

1월 31일 연합회에서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2013년 정기총회가 있었다. 후원회 이행자 이사장, 후원회 이사, 감사 등 총 31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도 결산보고,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와 201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이 있었다.

신임회장 연수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버들캠프장에서 신임 회장 연수가 있었다. 총 20개 회원Y 신임회장(강릉, 동해, 부산, 사천, 서울, 성남, 속초, 수원, 안동, 안산, 양산, 울산, 의정부, 익산, 제주, 진주, 창원, 춘천, 충주, 포항Y)이 참석하였다. 영성훈련을 시작으로 YWCA 회장의 역할, 한국Y

중점운동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 실무자 교육

연합회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버들캠프장에서 1단계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YWCA 목적과 역사 이해, Y활동가의 역할, 실무역량강화 등 YWCA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는 10개 회원Y 50명의 신임실무자들이 참가하였다.

다래교실 씨티-한국YWC협약식, 평가연구보고회 및 우수교사 시상식



2월 19일 연합회에서 다래교실 씨티-한국YWC협약식, 평가연구보고회 및 우수교사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씨티은행은 약 2억원의 기금을 전달하였다.

다래교실 학습지원 제1차 교사교육 및 실무협의회



2월 25일 연합회에서 다래교실 학습지원 제1차 교사교육 및 실무협의회가 있었다. '다문화 시대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독서지도에 대한 이해 및 활동계획 세우기'에 대한 강의와 2013년 다래교실 교사 및 실무자 운영 지침 안내가 있었다. 이날 회원Y 실무자 22명, 교사 29명이 참석하였다.

싱크머니 기초강사교육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버들캠프장에서 싱크

머니 기초강사교육이 있었다. YWCA와 싱크머니 프로그램 이해, 청소년 금융교육 이해, 싱크머니 교재 이해 및 활용 워크숍, 교안 작성 및 시연, 우수강의 시연 및 고등학교 현장 이해, 특강이 있었다. 이 교육에는 22개 회원YWCA 총 63명이 참석하였다.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이 열렸다. 키다리학교 비전 나눔과 함께 운영 내용을 함께 기획하는 자리였다. (자세한 내용 P.24~25)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협의회

2월 20일 연합회 강당에서 2013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운동 관련시설장 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YWCA 여성폭력 관련시설장 및 연합회 실무자 총 30명이 모였다. (자세한 내용 P.18~19)

청년·대학Y 활동모임

지난 2월 23일 토요일 천안 휴러클리조트에서 청년·대학Y 활동모임이 있었다. 청년·대학Y 회원 간 연대와 네트워크를 위하여 기획되었다. (자세한 내용 P.20~21)

YWCA어린이집 조리사·주임교사 역량강화 직무교육

2월 16일 대전 유성아드리아호텔에서 YWCA 어린이집 조리사·주임교사 역량강화 직무교육이 있었다. 총 45명이 참석한 이날, 어린이를 살리는 생명의 먹거리운동의 이해, 유아미각 교육과 요리, 그룹별 네트워킹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동정

- 최형선 신간 <동물들이, 힘을 내!> (도요새) 출간 (2013.2.15)
- 유성희 제57차 뉴욕여성지위위원회 (CSW)파견 (2.18~3.6)
- 권순형 원주YWCA 사무총장 취임 (2013.3.1)
- 반혜영 창원YWCA 사무총장 취임 (2013.3.1)

I YWCA News I

회원 YWCA 소식

북부

강릉 YWCA

김미란 간사

회장 이·취임식

강릉YWCA 제12대·13대 회장 이·취임식이 2월5일 있었다. 전배자 전 회장의 이임사와 고문희 회장의 취임사가 있었고, 땅과 생명을 살리는 강릉Y로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하였다.

2013년 신년하례회



강릉Y는 2월 19일 2013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의 말씀과 고문희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강릉Y는 생명살림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동해 YWCA

김정은 간사

회장 이·취임식

동해Y는 3월 5일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동해Y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제12대 장지영 이임회장과 제13대 박경옥 취임회장은 아·취임을 통하여 감사를 표하며 동해Y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속에서 동해Y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회장 이·취임예배

서울YWCA 회장 이·취임예배가 2월 12일 강당에서 열렸다. 4년 동안 수고한 이연배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서울Y를 이끌어갈 차귀숙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차귀숙 신임회장은 1989년 회원부 위원으로 서울Y 활동을 시작, 1992년부터 이사로 활동했으며, 서기이사·부회장을 역임했다. 차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서울Y의 기본정신인 영성을 회복하고 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나아갈 서울Y를 기대한다.

강남청소년수련관 개관 20주년 기념 감사예배



1993년 개관한 강남청소년수련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2월 21일 천영태 목사(산본남부교회)를 모시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서울Y 차귀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강남지부 지복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직원 등 35명이 참석하여 강남의 20주년 생일을 축하했다.

춘천 YWCA

진소정 간사

춘천YWCA 창립 47주년 기념



춘천Y는 3월 16일 창립 47주년 기념을 맞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뮤지컬공연을 관람하고 전 직원 단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공연 관람 후 직원모임을 통해 춘천Y 역사를

되돌아보고 Y실무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춘천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보호법 홍보 캠페인
 춘천Y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2월 16일 춘천명동 브라운관에서 청소년보호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대처방법을 알리는 게시물을 전시하였고 청소년인터넷 사용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에 바라는 점들을 나누었다. 이날 '돌봄과 살림' 교육생 54명과 지역주민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기

고양 YWCA

전선영 팀장

키다리학교 모집



고양Y는 2월 18일~22일 '키우자 Y다운 리더' 키다리학교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하였다. 총 39명의 신청자 중 26일에 진행된 인터뷰를 거쳐 총 31명의 청소년을 선발하였으며 3월 9일 고양Y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전국 6개 지역 키다리학교 입학식으로 2013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고양Y는 올해에도 '평화'를 주제로 상반기에는 청소년축제를, 하반기에는 평화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가고자 한다.

남양주 YWCA

이종은 간사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

남양주Y는 3월 7일 남양주 시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을 마련하였다. '돌봄과 살림' 교육생들을 위한 소통 한마당으로, 지역사회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의 어려움과

부천 YWCA

이지원 간사

부천YWCA 아기학교 제16회 졸업식



부천Y는 2월 20일 부천YWCA 아기학교 제16회 졸업식이 있었다. 1년 과정의 아기학교를 수료한 아기들을 축하하고 수료증을 주었다. 부천YWCA 아기학교를 졸업한 아기들이 앞으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란다.

부천Y 돌봄회원을 위한 민들레 강좌

부천Y는 2월 22일 돌봄회원을 위한 민들레강좌 '건강한 내 몸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갱년기 돌봄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강좌에서는 김선연(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 상임이사)강사를 모시고, 관절과 척추건강에 대한 집중강의를 들었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회원들의 좋은 평가가 있었다.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도우미자치회 정기총회

수원Y 도우미자치회 총회가 2월 23일~26일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바라기(가사,육아) 외 2곳의 총회에서는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2년 사업 및 회계보고에 이어 회칙개정, 2013년 사업계획안 심의가 있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수원Y는 2월 16일, 23일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교육을 위한 '아름다운 오색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가족화합을 위한 초록대화법'과 '자녀사랑 성교육'이 있었다. 약 20여 명 다문화가정이 참여하였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회장 이·취임식

안산Y는 3월 13일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안산Y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제14대 박성순 회장은 취임사에서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Y정책과 가치에 충실한 회장으로 서 도전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주미희 전 회장은 4년간 활동해오면서 회원참여 확대와 여성지도력 양성, 이주여성의 인권 및 생활정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감사패를 받았다.

안양 YWCA

최정근 팀장

돌봄미 정기교육

안양Y는 3월 4일 '나를 찾아 떠나는 음악여행'이란 주제로 돌봄미 정기교육을 하였다. 장빈 목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 이후, 돌봄미 회원들은 다음 교육을 기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3월부터 5월까지 살림돌봄미, 산모돌봄미, 아기돌봄미 정기교육 시간에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부 YWCA

이미진 간사

2013년 1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의정부Y는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2013년 1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교육을 통하여 만3개월 이상~ 만12세 아동의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활동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 교육에는 총 35명의 여성이 참가하였다.

중부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중·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비전워크숍

대전Y는 1월 31일 비전워크숍을 가졌다. '중기기본계획에 따른 비전 및 사업방향'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워크숍은 김은경 연합회 실행위원의 진행으로 운영하였다. 이날 이사, 위원, 실무자 등 52명이 모여 미래지향적인 발전계



획수립과정에서 자원지도자와 실무자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청주 YWCA 박보람 간사

실무자연합연수



청주Y는 2월 23일 임실중금마을에서 대안에너지 연구를 위한 실무자연합연수가 있었다. 총 59명이 참석하였으며 실무자들이 대체에너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사·위원연구모임

청주Y는 2월 27일 이사·위원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김익중 교수의 '방사능과 인체피해, 먹거리', 이유진 환경운동가의 '지역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대체에너지운동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분임토의를 통해 앞으로의 YWCA의 에너지 운동의 구체적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이날 이사·위원 총 7명이 참석하였다.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한국어교육 개강식



충주Y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월 4일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개강식을 하였다. 한국어 교육 개강식에 참석한 결혼이민자는 60여명으로 이중 44명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레벨테스트에 참여하였다. 향후 본 테스트를 기반으로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들의 개인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찾아가는 다문화 보육사업



논산Y 다문화가족지원사업부는 매주 2회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보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취약하여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과 자녀들에게 기초한국어교육과 이유식, 두뇌발달, 신체, 정서, 심리안정 교육 등 보육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다문화 보육사업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희망한다.

천안 YWCA 김상미 팀장

다문화 학습지원 다래교실 입학식

천안Y는 3월 19일 다문화 학습지원 다래교실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교사와 신입생들의 인사 나눔이 있었고 Y 리더로서의 의식함양 교육을 하였다.

서부

광주 YWCA 김해정 간사

이사·공천위원·상임위원 오리엔테이션

광주Y는 3월 7일, 새로 선출된 이사, 공천위원과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Y목적과 정체성, Y소개, 자원지도자의 자세, 이사·공천위원·상임위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Y지도자들의 자세와 역할, 정체성 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

남원 YWCA 조윤희 팀장

살림·산모돌보미 교육



남원Y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살림·산모돌보미 교육을 진행하였다. 남원Y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주 YWCA 김은진 부장

북한이탈주민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전주Y 전북하나센터는 3월 15일 사회복지 및 심리상담 전공자 30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북도민들이 북한사회 및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 지원을 위해 학습지원, 생활지원 정착도우미 등 봉사활동에 배치,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살림돌보미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신규교육 실시



전주Y 돌봄과 살림에서는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3주에 걸쳐 살림돌보미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65명을 대상으로 신규교육을 실시하였다. 가사서비스 이론 및 실제 등에 대한 교육과 산후조리 및 육아서비스 이론 및 실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왔다.

목포 YWCA 황정원 팀장

봄학기 신규프로그램 특강

목포Y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남 지역 방과후 지도사 강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감정코칭지도사·책놀이지도사·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다양한 교육으로 맛보기 특강을 실시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특강을 통해 많은 지역 여성들이 방과후지도사 강사로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포YWCA어린이집 제22회 입학식

목포YWCA 어린이집은 3월 4일 제22회 입학식을 하였다. 85명 영·유아들이 입학 허가를 받고 부모님과의 오리엔테이션과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영·유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2013학년도 어린이집 생활을 기대한다.



여수 YWCA 장미일 간사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개관식
 여수Y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는 2월 27일 수요일 센터 대강당에서 이전 개관식을 하였다.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센터 이전 경과보고와 함께 감사패 수여, 기념케익 커팅 등이 있었다. 개관식 다음날에는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픈데이 무료공개특강 '나와 내아이를 위한 감정코칭'의 강좌도 마련되어 약 60명이 참여하였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목포Y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단체(목포생협, 여성의전화, 여성장애인연대, 목포대학교 여학생회)와 연합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세계여성의 날"을 홍보하였다.

순천 YWCA 김정민 팀장

순천YWCA와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하는 'Beautiful Day'



순천Y는 2월 23일 순천YWCA와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하는 'Beautiful Day'를 진행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날 행사에는 14명의 Y회원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함께하였고, 기증물품은 1,146점, 총 판매 수익금은 1,687,800원이었다.

제주 YWCA 장진우 간사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제주 만들기 포럼



제주Y는 3월 7일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제주 만들기 포럼'을 개최하였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여친도시 모니터링단원 출범식도 가졌는데,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제주Y는 여성친화도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

서귀포 YWCA 김지희 간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상담프로그램 1기 수료
 서귀포Y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월 22일 경력단절여성 10명과 함께 한 취업상담프로그램 '도전! 커리어우먼' 과정 1기 수료식을 가졌다. 본 프로그램은 5일간 총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성격검사 '나 이해하기'와 직업선호도 검사 '나에게 맞는 직업탐색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에도 매월 2회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신청은 수시로 접수가능하다.

동아리공연



서귀포Y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월 한 달 간 다양한 동아리들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노래동아리인 선소리와 오선지, 엔터테인먼트동아리 반필인이 각각 정기공연을 통해서 다양한 끼를 발휘하였다.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는 정기공연 이외에도 지역의 축제나 문화존 행사, 학교축제 등에 참가해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시설 방문이나 해안정화 등 봉사활동도 벌이고 있다.

동부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봄학기 3월 특강
 김해Y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봄학기 직종설명회와 특강을 열었다. 총 7개 특강 중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부모의 얼굴을 비교분석해 재능과 적성을 찾아보는 '페이스 리딩'과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는 '수납 전문가 2급'으로 주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후 특강에서 소개된 내용은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3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김해Y는 3월 22일 김해새일센터 강당에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구인 신청을 한 업체와 구직자가 만나는 자리로 많은 구직자들이 참석하여 면접을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을 했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김해Y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구인처와 구직자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 YWCA 김세형 차장

소외계층을 위한 '착한 무료치료' 개원



대구Y는 3월 12일 대구YWCA 회관에서 '착한 무료치료' 개원식을 진행하였다. '착한 무료치료'는 매주 2회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저소득계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치료 진료를 실시한다. 대구Y '착한 무료치료'는 지역의 뜻 있는 치료 의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구강검진과 충치치료, 신경 및 잇몸치료, 치석제거(스케일링) 등이 가능하다. 무료치료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볼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

3.11 후쿠시마 2주기 탈핵희망버스

대구Y는 3.11 후쿠시마 사고 2주기를 기억하며 탈핵주간 사업을 진행하였다. 매주 화요일 대구백화점 앞 중앙광장에서 피켓시위, 탈핵 노래부르기 등 화요시위를 하며, 지역민들에게 탈핵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3월 9일에는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둘러보고, 경주 시내를 돌며 탈핵 행진을 진행하였다. 또한 3월 11일에는 대구시내 동성로 일대를 돌며 탈핵 플래시몹을 진행하여, 탈핵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 탈핵을 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울산 YWCA 이민정 간사

105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울산Y는 3월 9일 제18회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울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여하였다. '폭력없는 세상! 여성의 힘으로!'



라는 내용으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중단해야 하며, 여성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와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만들어 기자회견 및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

포항 YWCA 김윤미 팀장

민들레 한글 학교 수료식 및 입학식

포항Y는 3월 11일 제19회 포항YWCA 민들레 한글 학교 수료식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다. 지난 18년간 문맹자 퇴치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총 1,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포항Y 민들레 한글 학교는 지역 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였거나 한글해독 능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비문해자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2회 초급반, 중급반 수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학습으로 한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천 YWCA 박양성 간사

사천YWCA 다문화사업단 개소식



사천Y는 2월 22일 다문화사업단 개소식을 가졌다. 다문화사

업단은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통의 창이 되고자 한다.

진주 YWCA 김상녀 간사

다문화교육부 프로그램 개강식

진주Y는 3월 4일 진주Y 다문화교육부 1학기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다. 다문화교육부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써 단계별 수준별 한국어수업을 5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위탁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을 통하여 이주민 특화직종훈련, 일자리 알선사업도 수행 중이다. 한편 이날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 58명의 이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창원 YWCA 황은진 간사

창원YWCA-한마음병원 생명살림운동기금 약정식



창원Y는 2월 19일 창원YWCA-한마음병원 생명살림운동기금 약정식을 가졌다. 앞으로 이 기금을 바탕으로 창원Y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고, 함께 나누고 돌보는 생명살림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제17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추천을 받습니다!

살림과 나눔, 섬김의 가치를 잘 표현한 제17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추천을 받습니다.



시상 대상

- 2012년 1월 1일~2013년 3월 22일까지 방영된 프로그램 방영된 공중파 및 케이블 TV 프로그램

시상 부문

- 대상, 생명 부문상, 여성 부문상, 평화 부문상, 청년·청소년 부문상, 특별상

추천 기간

- 2013년 3월 22일(금)까지

추천 방법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추천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

- 주 소 : (100-021) 서울시 중구 명동1가1-3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 팩 스 : (02) 774-9724
- 이메일 : ywcapr@hanmail.net

심사 방법

- 전문위원들의 1차 서류 심사, 2차 영상물 심사, 3차 최종 심사로 진행

심사결과 발표와 시상식

- 1차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3월 말 (개별 연락)
- 2차 최종 심사 결과 발표 : 4월 12일 경 (개별 연락과 홈페이지 공지)
- 시상식 : 2013년 4월 25일(목)